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8월 20일(주일) 제1160호

기도로 새 학기 시작한다!



사진은 2017년 목양대회.

8월 27일~9월 17일 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

온누리 공동체가 기도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 8월 27일 양지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9월 17일 OCC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하반기 개강과 동시에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이 이어진다. 9월 3일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10월 1일 온누리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 11월 5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이다. 12월 2일에는 장로장립식이 거행되고, 12월 10일 부천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24일 평택 온누리교회 창립 12주년이다. 12월 11일부터 2017~2018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차세대 전임교역자, 파트교역자 인턴십

차세대 전임교역자와 파트교역자 인턴십을 청빙한다. 차세대 전임사역자는 1978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자로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구비한 교역자가 그 대상이다. 9월 청빙예정으로 졸업예정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청빙과정은 서류 및 설교심사, 인사위원회 개별 면접, 담임목사 개별 면접으로 진행된다.

1차 합격자는 8월 27일에 공지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목회자 추천서 2인 총 2부, 최근 설교 동영상 1편, 동영상 설교 원고 1부(USB 또는 이메일 onnurihhr@gmail.com),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신대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원본 1

부다. 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8월 23일까지 해당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파트교역자 인턴십 과정은 9월 16일, 23일, 29~30일에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소개, 사역본부 소개 등이 진행된다. 파트교역자 인턴십 참가자에게는 2017년 파트전도사 우선 채용 특전이 주어진다. 신학부 4학년, 신학대학원 1~2학년, 기독교육대학원 1~2학년이 대상이다. 9월 2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주소: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본관 2층 목회기획실
문의: 02-3215-3233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는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 양재는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매주 주일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통합데스크나 개강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서빙고 3만원, 양재 5만원이다.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이기복 목사의 대화법, 성경퀴즈대회,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이호 목사의 한국근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63(서빙고), 010-6213-4988(양재)

2017년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8월 29일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29일	김포	한동홀	오후 6시
8월 29일	용산	비전홀	오후 6시
8월 31일	성북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31일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9월 1일	동작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1일	동대문중앙	한동홀	오후 6시
9월 1일	이촌	시온홀	오후 6시
9월 1일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9월 4일	영등포구로	한동홀	오후 6시
9월 4일	가정사역	EM1	오후 6시
9월 5일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5일	강서	한동홀	오후 6시
9월 5일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9월 7일	충정로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7일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9월 7일	한강	비전홀	오후 6시
9월 8일	이수	콘서트홀	오후 6시
9월 8일	여의도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8일	관악금천	한동홀	오후 6시
9월 8일	성동광진	비전홀	오후 6시
9월 8일	찬양사역	시온홀	오후 6시
9월 2일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5시 30분
9월 3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6시
9월 7일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9월 7일	광명	은광교회	오후 7시
9월 10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9월 10일	특별한초대	순형홀	오후 5시
9월 16일	서빙고	과전로고스센터	오전 8시 30분
9월 16일~17일	OCC	Acts29비전빌리지	1박2일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8월 29일	강남A	드림홀	오후 7시
8월 29일	강남C	화평홀	오후 7시
8월 30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8월 30일	송파	화평홀	오후 7시 30분
8월 31일	안양평촌	드림홀	오후 8시
9월 1일	POINT5	온유홀	오후 8시
9월 1일	강남B	화평홀	오후 6시 30분
9월 1일	강남D	도곡교육관 온유홀	오후 8시
9월 1일	산본안산	드림홀	오후 7시
9월 2일	서초B	화평홀	오후 6시
9월 2일	서초D	드림홀	오후 4시
9월 3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5시
9월 6일	과천의왕	온유홀	오후 7시
9월 7일	분당B	드림홀	오후 7시
9월 8일	서초A	드림홀	오후 7시 30분
9월 8일	양재	온유홀	오후 7시
9월 10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3시 40분
9월 14일	CMN	드림홀	오후 7시
-	분당A	각 다락방 별 진행	-

캠퍼스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부 천	9월 2일	소망	드림홀	오후 4시
	9월 10일	믿음	미정	오후 4시
	9월 10일	사랑	비전홀	오후 6시
	9월 10일	희락	경찬홀	오후 6시
수 원	9월 7일	북누리	비전홀	오후 8시
	9월 8일	남누리	경찬홀	오후 8시
	9월 8일	동누리	비전홀	오후 8시
	9월 9일~10일	서누리	aps 홍천연수원	1박2일
대 전	9월 6일	공동체 연합	본당	오후 7시 30분
	9월 1일	C공동체	미정	오후 7시 30분
남양주	9월 8일	A공동체	본당	오후 8시
	9월 8일	B공동체	꿈명홀	오후 7시 30분
평택	9월 3일	공동체 연합	본당	오후 4시
인 천	9월 1일	공동체 연합	송도 프리스페이스 3층	오후 8시
	9월 7일	B공동체	본당	오후 7시
강 동	9월 8일	A공동체	사랑홀	오후 7시
	8월 27일	공동체 연합	박모세홀	오후 2시

서빙고 본당 이용제한

8월 21일~25일 예배는 비전홀과 경찬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바닥 교체 공사로 인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비전홀과 경찬홀로 장소가 변경된다. 1, 2부 새벽예배, 화요성령집회, 수요여성예배, 경배와 찬양예배는 비전홀, 수요목양예배, 금요회복예배, 금요철야예배는 경찬홀에서 드린다. 문의: 02-3215-3266



탐방 꼭 한 번 가봐야 할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잠들어 있는 군산 앞바다

전라북도 군산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와 ‘구암교회’



▲ 군산 3.1운동기념관(옛 구암교회).



▲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 전경.

꼭 한 번 가봐야 할 기독교 유적지가 한국에도 많다. 가족, 공동체, 순 단위로 방문하면 좋을 한국의 기독교 명소를 소개한다.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된다. 첫 번째로 소개할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잠들어 있는 전라북도 군산이다. 개화기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와 호남선교 스테이션이자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구암교회’를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개화기 당시의 흔적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 전라북도 군산은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900년대 초반 한국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과 일제의 수탈에 맞서 태극기를 흔든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금강 하류와 서해바다가 이어지는 전라북도 군산은 예로부터 호남지방 물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주, 진안, 장수, 금구, 태인, 임실 등 7개 읍의 세금을 보관하는 ‘칠읍해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수많은 배가 오가던 군산은 자연스럽게 근대도시로 발전했다.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시작됐다. 일제는 군산에 일본영사관을 두고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군산항 개항 초창기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잡화점 등을 운영하는 등 생계형 이주가 많았는데 점차 사업형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가족단위 일본인 영구 거주자가 많아졌는데 농장을 운영하는 지주들의 이주가 대부분이었다. 1920년대 미국 수탈이 늘어나면서 일본 지주들은 큰돈을 벌었다.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 군산의 땅 80%가 일

본인의 소유였다고 한다. 수탈로 인해 당시 군산 사람들의 반일감정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다.

전국에서 복음화를 가장 높은 도시 군산

일제의 수탈과 차별이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었던 ‘3.1만세운동’의 마른 장작이었다면 불쏘시개는 기독교였다. 군산은 일제 수탈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호남 선교의 중심지기도 했다. 1895년 군산에 도착한 남장로교 선교사 전킨(1865~1908)은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동료 선교사들과 군산 궁멸(현 구암)에 호남선교 스테이션을 세우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다. 호남선교 스테이션에는 궁멸교회(현 구암교회), 영명남학교(현 제일고교), 멜본딘여학교(현 영광여중, 고) 등이 있었는데 복음전파, 계몽운동, 근대화의 중심지였다.

전킨 선교사는 세 명의 아들을 군산에서 잃었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선교활동을 했다. 선교본부에서 전킨 선교사를 전주로 이송하고 반경 20리 안에서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을 정도다. 전주에서 교회 6개를 세우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던 전킨 선교사는 1908년 장티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가 뿌린 밑알은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8개도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는 전라북도이며, 전라북도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군산이다. 복음화율이 무려 30.27%다. 군산 시민 3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다.

전킨 선교사가 세상을 뜨고 10여 년이 흐른 1919년 영명남학교 교사이자 궁멸교회 장로였던 박세연, 이두열, 김수영이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군산 영명남학교 출신이자 궁멸교회 세례교인이었던 김병수가 군산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던 것이다. 3월 5일 호남선교 스테이션에 있던 영명남학교, 멜본딘여학교, 궁멸교회, 학생, 교사, 교인들이 영명남학교 운동장에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들이 시내를 지날 때 시민들까지 합세해 그 수가 수백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군경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90여 명이 옥에 갇혔다. 군산 3.1만세운동 이후 전주(13일), 정읍(16일), 김제(21일) 등지에서 호남지방 만세운동이 들불같이 퍼져 나갔다. 98년이 흐른 지금도 호남선교 스테이션 터에서 3.1운동을 기념하고 있다. 옛 궁멸교회는 3.1운동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다. 3.1운동기념관 건너편에 있는 현 구암교회에서는 ‘구암3.1만세홀’, ‘호남선교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연락하면 3월 5일 태극기를 휘두르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자란 장로들이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군산 아청도 근해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잊어서는 안 되는 선교사 아펜젤러(1858~1902)가 잠들어있다. 그를 기리는 교회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는 군산시 내초동에 있다. 원래는 내초동 온누리교회였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10년 동안 헌금을 모아 아펜젤러순교기념관을 세우고, 교회 이름도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로 바꿨다.

1885년 4월5일 부활주일,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육지에 오른 사람이 아펜젤러다. 그가 남긴 기도문은 아직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자신이 드린 기도같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빛과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번역 사업과 교육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1887년 배재학당을 열고 최초의 신교육을

했으며, 1887년 벨엘(현 정동교회)에서 최초의 감리교회 공중예배를 드렸다. 최씨 부인에게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세례예식을 베풀기도 했다. 1888년에는 한용경과 최씨 부인의 결혼식 주례도 봤다. 그 결혼식이 바로 조선 최초의 개신교 결혼식이었다. 이와 같이 동서분주하며 복음을 전하던 아펜젤러는 평소 임버릇처럼 했던 “선교는 순교입니다”라는 말처럼 1902년 6월 11일 군산 아청도 앞 바다에서 순교했다. 목포로 성서번역을 하러 가던 길에 짙은 안개를 만나 사고를 당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물포항을 떠났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돕는 서기이자 조수인 조성규 씨와 고향인 목포로 돌아가는 정신여학교의 한 학생,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술자 보울비와 동행했다. 밤 10시쯤 짙은 안개 속에서 아펜젤러가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했다. 비교적 탈출이 용이한 1등실에 있었고, 수영도 잘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쉽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생존자 보울비의 증언에 따르면 보울비가 계단으로 나왔을 때 아펜젤러는 피신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다. 배가 떠나기 전 정신여학교 교장이 “여학생을 잘 보살펴주세요”라고 했던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배가 가라앉았고 보울비는 가까스로 탈출해 45분을 물위에 떠있던 구조됐다. 다음날 오후 1시까지 구조작업을 펼쳤지만 한국인 시신 1구만 찾을 수 있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 <황성일보> 1902년 6월 14일자 신문에 따르면 이 사고로 46명중 26명이 익사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묘지에는 비석만 있을 뿐 시신이 없다.

방주를 연상케 하는 아펜젤러순교기념관에 가면 당시 시대적 배경, 아펜젤러의 탄생과 순교, 아펜젤러 선교사업의 의미, 감리교의 역사 등 방대하고 폭넓은 자료가 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남긴 유품도 볼 수 있다. 복음을 전하려고 전국을 다닐 때 들고 다니던 짐 가방, 한국에서 땅에 묻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던 이발기, 아내 닷지 선교사가 부녀자들을 위해 들여온 제봉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아펜젤러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해 기증했다고 한다. 사전에 예약하면 배를 타고 아펜젤러가 순교한 바다도 가볼 수 있다.

구암교회(담임목사 김영만)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 22 호남선교단 교회
문의: 063-442-3565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담임목사 임춘호)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안길 12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
문의: 063-467-2478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세 이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1절).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팡이 하나로 탈출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나이 80세에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맞섰고, 홍해를 건넌고, 애굽의 전차부대를 몰살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풀 한포기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패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고, 그가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여호와와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 모세의 비서,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선택된 지파 출신인 반면 여호수아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지파 출신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것과 달리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벽돌을 굽는 노예였습니다. 모세와 너무 대조되고 비교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리더로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고 전설적인 인물인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일이 있어날 수 있습니다. 의지했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는 돈과 명예, 인기를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권력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세를 데려가셔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실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뤄지게 될 가나안 정복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둘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2절).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만 합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어떤 핑계나 변명도 없이 내가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주어진 상황이 나 형편, 현실에 안주하거나 두려워서 요단강을 보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말은 임무도, 건너가야 할 요단강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성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기 사는 족속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한번 패하고 나서 하루 종일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격려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성품과 모습에 맞게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금극히 담대함을 가져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아시기에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야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워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네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헷 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서쪽 대해까지 네 영토가 될 것이다. 네 평생 너를 당해 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3~5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내가 밟는 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이전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양식을 얻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일하지도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사 43:18-19).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붙잡으십시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에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나라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모세의 죽음에 낙심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특집 미래를 내다보는 기독교

1.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2.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던져줄까?

3. 과학기술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 없이는 건강한 정보혁명 어렵다

IT 관련 법적, 윤리문제, 정보격차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고건 장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정보혁명은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넓고 깊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현재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던 시기가 바로 그때다. 과거 민주주의, 산업혁명, 자본주의 혁명은 모두 기독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발전되어 왔다.

과학기술혁명과 자본주의 잉태시킨 기독교

기독교는 근대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근대과학은 천문학 분야에서 태동되었는데, 네 사람의 개척자들(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은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이 천문학을 하게 된 동기도 바로 기독교 때문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그리스도인들의 천동설 모델처럼)가 그렇게 복잡할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동설 연구를 시작했다. 갈릴레이는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다. 갈릴레이를 처벌한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당시 교황청이라는 조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케플러는 “우리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 자신의 노력 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였다. 뉴턴도 독실한 청교도였다. 역사는 “뉴턴은 매일 성경을 공부했으며 뉴턴이 만유인력을 연구하게 된 동기도 종교 때문이었고 자신의 모든 업적은 기도응답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가 자연을 살살이 파고들은 것은 신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함이었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격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1~199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98.6%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다(개신교 64%, 유대교 22%, 가톨릭 11%, 동방정교회 1.6%). 기술의 경우도 산업혁명은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정보기술은 퓨리탄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도 기독교와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해왔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는 먼저 도덕적인 정신이 자리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감각론>부터 썼다고 한다. 도덕에 대해 먼저 논하고 그 기초 위에서만 경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아담 스미스는 도덕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fair play)을 중요한 요소라

고 보았다. 만일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변칙적으로 경쟁에 임한다면 자본주의는 실패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 이론은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었는가? <국부론>이라는 지식을 이해한 나라는 모두 자본주의가 성공했는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유독 영국과 미국 등에서만 성공했다. 막스 웨버(Max Weber)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19세기 직업 통계를 보면 한 가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가톨릭 신문, 문헌, 회의에서도 활발히 논의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곳에서 통계 수치로 더욱 분명하게 대규모 근대적 상업에서 자본·경영·노동의 프로테스탄트 백분율이 현저히 높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한 정보혁명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담 스미스 이론은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는데 왜 유독 영국과 미국 등에서만 자본주의가 성공했을까? 그것은 당시 그 사회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윤리의식으로 무장되어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도덕 정신으로 사업에 임하였다. 막스 웨버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이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으로 일했다. 그들은 직장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근면한 경제활동의 욕을 불러일으키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토록 하였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게 하였고, 돈을 벌어도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적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던 도덕적인 인력들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

이 유독 영국과 미국에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성공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사료된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잉태되고 성숙해서 오늘날 인류에게 큰 변명을 누리게 해준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정보사회는 도덕적 토대가 없이도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정보사회를 위해서도 과거 산업사회처럼 도덕적 기반이 중요하다면 21세기의 도덕적 기반은 기독교 이외 어떤 에토스(ethos, 풍조)에서 찾을 것인가? 기독교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인류의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정보사회의 독과점과 윤리적 문제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줬을 때 정보사회는 어떤 문제를 던져줄 것인가? 이를 위

AI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당장 여러 분야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났을 때의 배상책임과 처벌,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면, 로봇이 사람이나 물건에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소유주가 설계자인가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이 간단하지도 않고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법적 틀로 풀어나가에는 전 문성에서나 이론적 토대에서나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이세돌과 AI의 바둑경기일 것이다. 바둑을 평정한 인공지능은 앞으로 주식, war game, 법률, 인문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류의 능력을 추월하게 될 것인가? 그럴 때 만일 피조물(AI)이 오히려 창조주(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EU는 ‘로봇공학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자율주행차량, 수술용 로봇, 로봇인공기관 등으로 나누어 규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가 없이는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이 지구상에 생겨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보기술은 미국과 서구가 주로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가 역동적인 나라다. 그러므로 IT와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갈수록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나라)는 고급 정보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해 더 가난한 자(나라)가 될 수도 있다. 정보격차는 연령 때문에도 발생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 적응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기독교계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오래전 하용조 목사님이 “당신은 컴퓨터 전공이니 ‘IT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글을 쓸 수 없느냐”는 권고를 해주셨고, 또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IT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감히 어렵게 펜을 들었다. 나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지면에 맞춰 작성하다보니 많은 실수가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이 글을故 하용조 목사님께 바친다.

2017 정신건강세미나 '정신질환과 가족'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지켜봐주는 한 사람

환자 가족이 알아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

“딸의 정신질환 치료 때문에 집안이 파탄이 났다. 가족의 정신건강도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올해 초 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70대 노인이 한 말이다. 이렇듯 환자 가족들이 겪는 마음고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거의 없다. 기대할 곳이라고는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 교회가 앞장서서 환자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해 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장순우 전문의가 환자들의 가족이 알아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장순우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대략 25%로 성인 넷 중 한 사람은 일생동안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질환에 따른 증상의 정도나 경과, 예후는 저마다 다르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여러 번의 재발과 만성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번아웃(burn-out)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편견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적인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약물치료에 더하여 가족교육과 가족 개입을 통한 접근으로 치료했더니 환자들의 재발률과 입원 횟수가 줄어 들었으며, 가족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족 개입과 가족치료의 중요성이 간과될 때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환자의 가족으로서 알아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환자라는 말 대신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 바란다.

다섯 가지 의사소통 기술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적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보이는 특별한 증상과 관련해서 악화되거나 재발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위기 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과 건강한 부분들도 인식하고 있으면 좋다. 특히 약물치료에 대한 가족들의 오해로 치료시기를 놓치고, 검증되지 않은 엉뚱한 치료법을 찾아다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둘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방

식을 살펴봐야 한다. 가족환경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과도한 감정적인 표출(High expressed emo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서로 비난하는 말을 퍼붓고 적대감과 분노를 마구 쏟아내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말하며, 환자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고 강요하며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조현병 환자의 재발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2~3배 높았다. 반면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과도한 감정적인 표출과 재발률 증가의 상관관계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질환에서도 입증되었다. 우울증과 조울증, 식이장애,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에도 재발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두 종류의 상호작용을 보이는데 가족과 환자가 서로 비난하며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는 증상의 악화나

불평하며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요청으로 바꾼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알아듣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분이 들었는지를 명확하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회복하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

셋째, 가족으로서 갖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족으로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환자에게만 매달려서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 돌봄에 따른 지나친 부담으로 육체적인 탈진과 정서적인 소진이 뒤따른다. 환자가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커다란 슬픔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킨

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 회복의 정의(Anthony)이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때로는 희망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문제들을 겪어내고 통과해가면서 성장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이다.

넷째, 환자와 가족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함께 열어가야 할 미래가 있다. 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개선되어가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다. 가족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와 주거시설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의료체계 활성화가 요구된다.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에 맞서는 최전선에서 환자 및 치료진과 한 팀을 이루어서 싸움을 벌여야 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족들이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오래 동안 겪어온 사람들이 주변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너는 버림받았고 병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스러운 소리일 것이다.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내면의 고통을 경험한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한 사람이다. 많은 경우 가족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소외되고 지쳐가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병을 숨기거나 감출 필요 없이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공동체에서의 경험이 재활과 정을 촉진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신건강 관련 사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교회마다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 병들어 쓰러져 있는 환자를 가족들이 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서빙고: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양재: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2017 정신건강세미나 <가족회복프로그램>
일시: 9월 2일~23일 매주 토 2시
문의: 010-3792-0071, 010-3093-1753

“환자와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에서 질환을 숨기지 않고 나누며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행동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환자가 가족의 비난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 결과 스스로에게 낙인을 씌우고 자기비하를 하며 부정적인 이미지의 자아상을 갖게 된다.

환자가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인식하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지적인 가정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들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 기본적인 의사소통기술로는 긍정적인 감정표현, 적극적 경청, 긍정적인 요청, 의사소통의 명료성, 특정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표현 다섯 가지가 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다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분위기도 좋아진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 지라도 기쁘고 고마웠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잘 듣고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원하는 것을

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의 무관심과 주변의 기피하고 무시하는 시선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증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작 환자는 가족의 노력을 거부하고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들은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들이 서로 조금씩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른 가족들을 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건강이나 취미관련 활동을 포함해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한순간에 환자가 극적으로 호전되기를 바라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자 중심의 시각에서 회복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병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고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 정신질환이라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성장하며 새로운 의

부천 대학청년부 드림플러스 남아시아 N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희준 자매
(부천 드림플러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
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
서”(시 51:12).

하나님은 나에
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

게 하셨다. 이번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염려가 많았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부터 상황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내가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를 걱정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의 기후였고, 두 번째 이유는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남아시아 N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작년에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에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았다.

평소에 더위를 무척이나 꺼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출발 전부터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다. 거기다 올해 3월부터 계속 이어진 아웃리치팀 모임이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더 잦아져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모였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웃리치를 가



무더위에도 뛰고, 찬양하고, 춤추며 어울린 아웃리치팀과 남아시아 N국 아이들.

야 하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아웃리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남아시아 N국 아이들과 가장 더운 낮 시간에 함께 뛰놀면서 찬양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했다. 더운 날씨에 땀이 범벅이 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머리가 핑 돌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같이 더 열심히 찬양하고 싶고, 더 즐겁게 뛰어 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처음에는 우리를 어색해하던 남아시아 N국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나서 위식을 따라하고,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고 감사했다. 나도 모르게 먼저 앞에 나가서 위식을 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다가가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끄는

등 평소 나에게서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목이 마르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뻐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고 감사했다.

그 기쁨과 자유함은 남아시아 N국 아이들을 만난 시간뿐만 아니라 아웃리치의 모든 일정 동안 이어졌다. 우리팀이 묵었던 교회에서 개미, 바퀴벌레, 도마뱀이 나와도 매일같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짜증이나 불평이 아니라 남아시아 N국에서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겼다. 지체들과 힘을 합쳐 벌레를 내쫓고, 비가 오면 빗속에서 뛰어 놀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이든 남아시아 N국이든 모두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지역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기쁨을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드림플러스 아웃리치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기쁨과 사랑을 흘려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평택 파워웨이브 여름캠프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유하영 자매

유난히 더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매년 가는 수련회지만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기에 기대가 많이 됐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평택 파워웨이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수련회 첫날,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앙의 대한 확신이 없는 나와 다른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세계관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가 진행을 맡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다. 진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모두가 즐기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긴장감이 사그라들었다. 언제 긴장했냐는 듯 나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면서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 매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간식을 먹으면서도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과 간식을 준비해주신 집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했다. 식사를 하기 전

에도, 말씀암송을 할 때도 함께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번 수련회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모조리 털어 놓았다. 나의 생각을 다 털어놓았더니 마음이 후련했다. 기도를 하다 보니 12시가 훌쩍 지나버렸지만 잠이 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만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한 날이었다.

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친구들이 서로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같이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두 번째 세계관 강의도 듣고 레크리에이션도 했다. 밤에는 ‘천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더니 슬펐다.

유언장을 쓴 뒤에는 밖으로 나갔는데 너무 어둡고 벌레도 많아서 무서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면서 무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숨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코스는 믿음의 코스였다. 안대를 쓰고 서로의 손을 잡고 앞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신문에서 죄의 열매를 찾아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있었다. 나로 인해 조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 두 번째 코스는 고난의 코스였다. 마치 군대에 온 것 같았다. 이 코스에서도 한사람의 실수로 다른 조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 힘들어하는 조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위로해주었다. 세 번째 코스인 유혹의 코스를 지나고 마지막 코너인 결단의 코스에서는 관에 들어가면 밖에서 다른 조원들이 내가 쓴 유언장을 읽어주는 형태였다. 다른 조원들의 유언장을 읽어주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

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관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 내가 쓴 유언장을 들었더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용기도 얻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다.

수련회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끝나지 않고 나와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대전 초등부 여름캠프



주선경 교사
(대전 초등부)

대전 온누리교회 초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초대됐다. 이번 초등부 여름캠프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여름캠프는 매년 새로운 주제가 있고, 잘 준비된 자료가 제공되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대전 초등부 전도사님과 리더십들은 잘 준비된 캠프를 경험할 수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여름캠프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대전 온누리교회의 비전 중 하나가 ‘지역 속으로 들어가 연합한 교회를 격려하며 돕는 것’인데 초등부 아이들이 이 비전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아웃리치점 여름캠프를 소망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시골 교회를 섬기고, 시골 교회 어린이들과 대전 초등부의 아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경험하는 아웃리치 및 여름캠프를 경험시켜 주고 싶었다.

여름캠프 40일 전부터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최고의 캠프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했다. 캠프 1~2주 전에는 모든 교사가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화장실의 묶은 띠를 벗겨내고, 분당 대청소를 하였다. 아이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초작업과 방역작

업도 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여름캠프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교사들의 아웃리치를 먼저 시작하게 하셨다.

시골 교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조금 염려했는데 기우였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모든 프로그램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불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참으로 감사했다. 틈만 나면 찬양과 율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 사람이 시작하면 찬양과 율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천국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시골 마을을 돌면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 흘리면서 고사리 손으로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감동받은 노부부가 “꼭 교회에 갈게요”라고 화답 하셨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상기된 얼굴로 달려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도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름캠프 마지막 날 밤, 장난꾸러기 친구가 경건한 모습으로 세족식을 치르고, 눈물로 회개할 때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보듬고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 시골 교회 아이들과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는 대전 온누리교

하나님의 선물



여름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어 어울렸다.

회 초등부 어린이들의 듩직한 모습도 돋보였다.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중간에 집에 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가지 않겠다고 울면서 부모님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이,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아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며 눈물을 계속 흘리는 아이의 고백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다.

“세족식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 한바가지를 쏟네요. 눈물이 너무 나서 대야가 넘칠 지경이었다고 했어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족이 다 같이 눈물 한바가지를 흘렸어요.”

“아이랑 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예수님 만난 것 같다고 여름캠프를 또 한 번 하

고 싶다는 고백이 참 기뻐요.”

캠프 이후 부모님들을 통해 들은 아이들의 고백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캠프 후에 전해지는 아이들의 마음 역시 큰 감동이었다.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얻게 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다스리는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게 될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번 여름캠프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는 남은 한 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부족한 나를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전도폭발팀 거창·함양



김정희 성도
(가정사역공동체)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전도폭발팀은 이 말씀을 품고 경상남도 거창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아웃리치를 출발하기 전 내 마음속에는 감사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43개월 된 아들과 남편이 함께하는 전도여행에 감사하면서도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야 하고, 아이를 데리고 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 지낼 것이 염려되었다.

7월 말 무더운 날씨 속에 도착한 거창 가천교회는 예상외로 참 예뻐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의 환한 미소가 햇살보다 밝았다.

거창 가천교회에서 묵화하고 있는 한윤심 목사님은 미혼의 여자 목사님이셨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과 생기가 가득하셨다. 목사님의 눈빛에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느껴졌다. 한 목사님 혼자서

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버겁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목사님은 마을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섬기고 있었지만 정작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결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없다고 했다. 복음 전도가 절실했다.

가천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복음을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고 하셨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했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었다.

처음 방문했던 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교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셨다. 안부를 여쭙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렸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다. 같이 결신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망설이시며 거부하셨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 그때 같이 갔던 5살 된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자 할아버지도 마음이 누그러지셨는지 “그래 그래”하며 웃으셨다.

전도에 방해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던 어린 아들이 오히려 전도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마을회관에 더위를 피해 모인 할머니들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린 아들이 분위기를 부드럽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전도여행



김정희 성도의 아들(5세)이 어른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

게 만들어서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천교회 권사님들이 저녁식사를 준비해주셔서 낮에 보였던 어른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숙소에서 권사님들과 나눈 간증들도 참 귀했다. 다음날 새벽예배를 드리고 함양의 해평교회로 이동했다. 그곳에도 척박한 시골 교회에서 홀로 묵화하시는 고석란 목사님이 계셨다. 축호전도에 동행해줄 성도가 없어서 목사님께서 직접 안내를 맡아주셨다. 시골의 작은 교회

를 지키시며 외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키시는 모습에 숙연해졌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골 교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전도자로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전도여행이었다. 가기 전에 여러 걱정들이 있었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자녀와 우리를 돌보시고 더불어 큰 감동과 기쁨으로 채우셨다. 내년도 내후년도 전도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공동체 일본

박성봉 성도
(여호수아공동체)

“최고의 시절이
자 최악의 시절이
었다. 지혜의 시대
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이자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
절이면서도 어둠
의 계절이었고, 희
망의 봄이지만 절
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들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으나 우리 모
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
이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격동
의 시기가 꼭 지금의 일본 선교와 닮았다. 두
도시 이야기의 내용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내
가 경험한 일본 아웃리치 소감을 나눠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나의 일본 아웃리치는 러브소나타
집회 봉사였다. 10년 전 일본 유학 중에 러브소
나타에 참석한 적이 있다. 사이타마 아레나(당
시 K1 경기가 주로 열렸던 유명한 장소)에서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해 공연했고, 하
용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의 가슴을 뛰게 했
던 집회였다. 일본인 또한 많이 왔던 기억이 난
다. 그때 봉사를 하다가 만났던 어느 목사님께
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러브소나타 행사는 사실 일본인에게 낯설

고 부담이 되는 행사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많은
일본 목회자들에게 부담이라는 의미였다. 일
본은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보수적인 곳
이다 보니 일본 목사님들에게 러브소나타는
당연히 부담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말씀해 주셨다.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
서 목회자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연합
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다.

러브소나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일본에서 진행되는 러브소나타가 눈물의 씨
앗이 되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
대한다.

두 번째 일본 아웃리치는 일본 도쿄 고토(강
동)구에 있는 에다가와 사랑의교회에서의 어
린이사역이었다. 에다가와 지역은 관동대지진
의 아픔이 있는 곳이며, 조선인 학교가 위치하
고 있어 한국과 관계가 깊은 곳이다.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조용길 선교사님께서 일
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에게 여름 성
경학교를 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팀이
이틀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교회 장소
가 협소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공동 회의실을
예쁘게 꾸미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다양한 한
글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업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에다가와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

진행했다. 처음에는 굳이 왜 일본에 있는 한국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까 의아했지만 그럴만
한 이유가 있었다.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는 지
속가능해야 하는데 일본인 전도부터 시작하면
너무나 더더서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하셨다. 그래서 먼저 일본에 오는 주
재원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전도
해서 건강한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한 것
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 맞는 전략적인 일본
선교를 하고 계셨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어느 은
행의 “Think Globally, Act locally(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이라는 로고
처럼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야 하지만
그 지역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노원공동체 전복 임실

최윤정 성도
(노원공동체)

은누리교회에 다
니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름휴가를
아웃리치로 다녀
왔다. 서로 돕고 사
랑을 나누는 섬김
에 큰 감동을 받았
기 때문이다. 그런
데 얼마 전 시어머
님께서 갑자기 뇌
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웃리치 참가를 결정하
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이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나는 전복 임실 아
웃리치 출발 며칠 전에 참가를 결정했다. 노원
공동체는 전복 임실의 선교회, 운암제일교
회, 학암교회에서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도착
예배의 찬양 인도를 몇 주 전 암수술을 받으신
이정우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생명 다하
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겠다”
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은혜
를 받았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나는 의료사역팀과 함께
했다. 영양수액을 맞고 있는 어르신들 곁에 가
서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었고 할머니들이 많았다. 복음을 어렵게 설
명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쉽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
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또한 가족의 기
도제복이 있으면 중보기도 해드리겠다고 하자
어르신들이 마음 문을 여시기 시작했다. 그 덕
분에 할머니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한 할머니는 교회에 2년 동안 다니셨는데 아
무 것도 모르지만 그냥 “감사합니다”하며 사
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분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내가 “맛아요 할머니.
감사해하시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
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에
게 기쁨과 행복으로 가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할머니는 앞으로 더 감
사하며 살 것이라고 하셨다. 한 분 한 분이 소
중하기에 그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첫째 날 전도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다섯 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셨다.
운암제일교회에는 한 젊은 여성분이 있었다.
자녀가 얼마 전에 머리를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심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
셔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결심한 것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영양수액을 맞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 중인 이창규 목사, 김영실 사모.

은 물론이고, 친구 두 명도 초대해서 영양수액
을 맞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85세 할머니 한 분은 허리가 90도 이상 굽어
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 그러나 교
회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
찍 고추말리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
동을 받았다. 주일 오전 교회에 오시기로 약속
하셨던 분들의 집을 방문해 교회로 모시고 왔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그 분들이 교회에 나
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며 감사하
셨다. 운암제일교회에서는 6명, 선교회에서는
7명의 마을 주민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
각해보니 전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
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은혜였다. 구원
계획에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다.

최정주 권사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낭만파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작한 것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한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도,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도 아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임을 이 작품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된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흐는 그 역시 목사가 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피에타’, ‘나사로의 부활’, ‘선한 사마리아인’ 등 종교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흐가 정신병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머물던 시절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의 등장인물은 강도를 당한 이와 사마리아인 두 명만이 아니다. 그림 왼편 오솔길 초입에 율법책을 끼고 가는 레위인과 오솔길을 따라 저 앞쪽에 도망치듯 걸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분명 그림 속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강도를 당해 고통 받는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큰소리로 가르쳐 온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동에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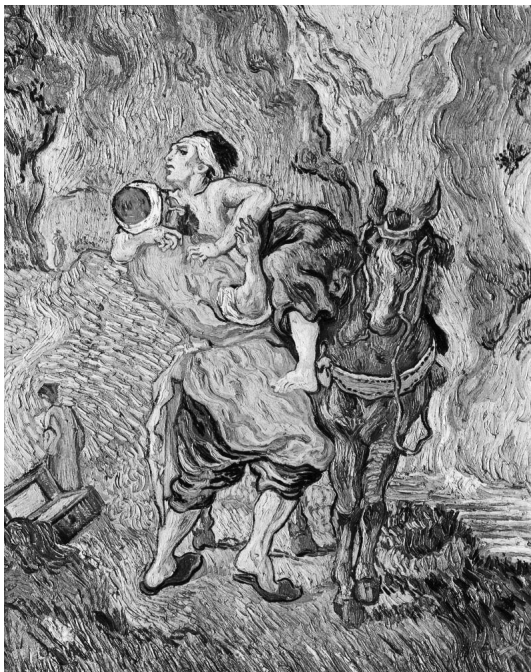
이 그림과 함께 들어보기를 권하는 곡은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이다. 서민들의 생활을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베리소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작곡가 마

스카니를 단숨에 세계적인 작곡가로 만든 곡이기도 하다. 이 곡의 작곡 연도는 1890년으로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린 후 권총으로 자살해 생을 마감한 바로 그 해에 만들어졌다.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던 두 예술가였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고흐는 살아생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스러져 갔는데 마스카니는 이 오페라로 단숨에 작곡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곡은 간주곡이면서도 마치 아리아의 선율만큼이나 아름답고 감미롭다. 폭풍이 멎고 주인공이 칼에 찔려 죽기 직전

호흡을 가다듬는 감정적 소강상태 표현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한다. 강도당한 자의 아픔과 그를 매몰차게 지나쳐 간 레위인과 제사장의 비정하면서도 갈등되는 심정을 표현하는 느낌과 잘 맞는다. 포르테로 이어지는 주 선율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1890).

부분에서는 고난에 빠진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같은 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현의 소리가 마치 자신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에게 “고마워요, 고마워요”하고 말하는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적 배경지식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된 맥락이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신 그의 생각을 되물었다. 그러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대답하셨다. 이때 그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고흐의 그림과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실제로는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걸까? 무엇보다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은 바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관점이었다. 내 이웃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살고 있는 동네의 지인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 범위를 좀 더 넓혀본다 해도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인가”로 바꾸셨다. ‘나’가 아닌 ‘그’ 즉, 상대방으로 관점을 바꾼 것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 생각이 명확해진다. 생각이 명확해지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명백해진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 큰 병에 시달리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지금 누가 그의 이웃인가”를 생각한다면 나의 행동이 지체될 수 없고, 내가 주는 도움이 늦어질 수 없다. 어려운 자 ‘그’의 이웃이 되는 삶이 묵상되는 시간이다.



최정주 권사(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생각해봅시다!

누군가 “사회선교의 창시자가 누구일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으로 가르침(teaching), 전파(preaching), 치유(healing)를 말씀하고 있는데 치유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동사 ‘테라퓨오’와 ‘이아오마이’다. ‘섬기다’와 ‘봉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도 잘 나타난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사는 교회를 세워 민족 복음화의 지평을 열었음은 물론이고 고아원, 병원, 학교를 세웠다. 문맹과 질병,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사역들을 균형 있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다락방에는 균형 잡힌 사역의 정체성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실행되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다락방 그리고 순모임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는 ‘1다락방 1사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회선교를 전개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지라 지역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선교는 해외선교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음전도만이 아니라 사회참여도 선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최초의 합의는 1974년에 발표된 ‘로잔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가 일차적이라는 진술을 덧붙임으로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증가되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로잔대회에서는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통전적 선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사회참여는 복음 전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 존 스톱트 목사는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는 별개이나 동등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인식의 발전과 신학적 배경은 더 이상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회선교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필자의 개

교회와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교와 사회참여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온누리교회 노원공동체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노원공동체는 2013년부터 공동체의 사회참여를 시작했다. 각 다락방별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미혼모 자녀 후원과 이주노동자 섬기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다. 국내 아웃리치 대상지를 찾다니면서 여러 농어촌교회를 방문했고, 소규모 팀을 파견해 의료사역과 교회보수 사역을 진행해왔다. 필요한 예산은 공동체 예산과 성도들의 개인적인 헌금으로 충당해왔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2017년 상반기 노원공동체 사회선교부의 과업은 조금 부담스러운 사역이기에 거절할 명분이 충분했다. 작년 아웃리치에서 방문했던 전라북도 임실 지역 교회에서 교육관 신축에 필요한 인력과 약간의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공동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방안이 결정되었고, 30명 정도의 교육관 설계와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과정에 개입하고 인력을 파견해서 공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빙고 농어촌선교팀과 사회선교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공사물자와 집기 구입에 필요한 약간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부족한 자금은 각 순별 개인 후원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관의 미진한 공사는 공동

체 아웃리치를 통하여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지난 8월 4일 노원공동체는 2박3일 일정으로 임실지역 3개 교회와 3개 마을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전도팀, 의료팀, 미용팀, 건축팀이 뒤섞인 그야말로 통전적 선교 현장이었다. 각자의 사역지에 흠어져서 2박3일 동안 서로 만나지도 못한 채 사역에 열중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다. 조그만 마을에서 19명의 결신자가 나왔고, 그들 중에서 15명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 작은 산골마을에서 기적이 발생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막 8:2)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진정성의 승리였다.

노동과 의료행위와 복음전파의 구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주방에서 밥을 짓는 것조차 선교였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던가. 무더위에 모두 땀방울을 흘렸지만 우리의 영혼의 닦은 이미 천국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그곳은 천국이었다. 보라, 우리 모두는 세상 속으로 보낸 받은 사회선교사들이다.



박진호 집사(노원공동체, 사회선교팀장)



세례받은 이주민이 세례증서를 수여받고 기뻐하고 있다.

이주민 26명 천국 시민으로

온누리M미션, 이주민 연합세례식 개최

캄보디아에서 온 미 빼에룬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불교에서 숭배하는 신에게 열심히 음식을 바치고 예배하고 섬겼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롭고, 죽고 싶고, 답답했다. 그런 그가 친구 따라 간 안산M센터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다.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미 빼에룬이 지난 6일 온누리M미션 이주민 연합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다. 빼에룬 뿐만 아니라 8개국(몽골, 중국, 아랍, 네팔,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 26명이 세례를 받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났다.

이날 무슬림이었던 강살롬(가명)

은 세례증서를 수여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영군(3세, 몽골)은 최연소, 조옥금 성도(80세, 중국)는 최고령 세례의 주인공이었다. 온누리M미션 이주민 연합세례식은 세례증서 수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주 목사는 ‘세례의 의미’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세례자들을 축복했다.

이주민들의 세례를 축하하러 온

신현승 장로는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삶에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고, 넬슨 제닝스 박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세례식을 보며 춤을 추고 있다”고 축하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어드후와 감치 맥 부부(몽골)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했다.

한편 이날 온누리M미션 이주민 연합세례식에는 온누리M미션, 장로사관학교, 서초C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이 봉사자로 섬겼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탈북민 초기정착 돕는 봉사자 모집

숙소청소, 아파트 입주 지원, 자치센터 업무 등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하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 김포와 부천 지역에 거주를 희망한 탈북민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봉사자들은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나온 첫 날부터 함께 숙소청소, 아파트 입주 지원, 자치센터 업무, 휴대폰 개통 등 한국 생활 전반을 돕는 역할을 한다. 1주일에 2회 이상 방문해서 교제하면 된다.

경기서부 지역 하나센터 한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나온 이후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문의: 032-322-9686

동성애, 동성혼 반대 서명운동 참여하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지난달 말부터 ‘동성혼 개헌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20일 만에 16만 명이 시민이 동참해 동성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에 의하면 8월 말에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그 개정안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참여: <http://hisland.org/#intro>

2017 임직자스쿨 개강

9월 2일 오후 4시 서빙고 비전홀

2017 임직자스쿨이 9월 2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강한다. 이번 임직자스쿨은 9주 동안 서빙고 화요일, 양재 토요일, 대전 토요일이 운영된다.

서빙고 화요일은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후 8시 비전홀, 양재 토요일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오전 10시에 화평홀에서 열린다. 9월 9일은 통합강의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오전 10시 303호에서 진행된다.

임직자스쿨에서는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십’, ‘교회론과

목회철학’,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세계를 품은 리더’, ‘안수집사와 권사의 모델’, ‘일터영성’, ‘행복한 가정과 리더’, ‘부르심과 헌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임직자스쿨을 수료하려면 개인영성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10월 15일까지 신약성경통독, 새벽기도 20일 참석, 필독서 보고서 제출, 20일 말씀묵상 큐티노트 제출, 봉사활동 등을 완료해야 한다.

문의: 02-3215-3661(서빙고)

02-570-7522(양재)

042-825-3642(대전)

/ 이소정 기자

제1회 TIM 선교캠프 171명 참석 성황

선교사와 성도가 함께 선교 나누고, 예배드리고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1회 TIM 선교캠프에 171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회 TIM 선교캠프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선교사 65명, FA(Frontier Agency movement) 36명, 일반 성도 70명 등 171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교캠프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선교를 나누고, 마음껏 예배하는 축제였다. 메시지도 풍성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TIM 25주년을 맞이하며’를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보냈고, 한정국 선교사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홍성건 목사 ‘

Be Nations-Changer’, 도육환 목사 ‘TIM Beyond the 25th year’, 이재환 선교사 ‘여전히 선교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위십콘서트, TIM미션토크쇼, 어울림한마당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최필말 선교사(요르단)는 “선교지와 달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전도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깨달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민주 성도(산본안산공동체)는 “선교사님들의 현실적인 삶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 윤서연 자매는 “나도 아랍어로 전도할 수 있겠다는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 개최

27일까지 ‘관계기술훈련’도 병행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서 하나님, 이웃, 동역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19가지 관계기술을 알려준다. 회복사역팀이 개최하는 19가지 관계기술훈련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회복 전문 강사인 크리스 코시(Chris M. Coursey)와 에이미 브라운(Amy Brown)이 ‘기쁨을 샘솟게 하는 뇌기술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뇌기술들’, ‘고통을 해결하는 뇌기술들’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와 동시에 관계기술훈련(Thrive Training)도 실시한다. 관계기술훈련은 개인의 관계와 감정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이다.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26일과 27일에는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늘 목회지원실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회비는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 관계기술훈련 각각 5만 원이다. 문의: 02-3215-3532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8월 20일 (주일) 시간: 오후 3:30

장소: 양재 드림홀 / 대상: 6월 11일~8월 5일까지 등록성도

강남A 김진우 이정은 송태현 전시욱 박정훈	최장미 구현숙 강남C 권오식 임승민 이영아 박정훈 김나미 김미정	강남D 정인경 신경화 강경태 강민영 석현수 이수진 한규석	과천의왕 김애리 최문상 권태인 분당A 이회립 김선희 김수연 이은영	분당B 박선재 이언정 박위상 박영서 신희순 분당A 이회립 김선희 김수연 이은영	우지연 조현준 권명재 홍수욱 정호진 안태근 이승희 배희숙 최진 산본안산 박주운	김미란 서초B 이철 홍미숙 이루미 허태호 박대우 김정아	서초C 김신주 김혜련 조은서 서초D 김성진 이지선 안도현	송파 고선혜 김현희 임성희 박한나 권정동 이기용 안양평촌 정용재	조혜연 김난희 이창희 김영미 양재 양옥희 이인숙 전희영 양하영 이한승	푸른누리 정재연 지정 이준영 노경환 성연경
--	---	--	--	---	---	---	--	---	---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두 손 모아주기를 부탁한다

/ 유예녹, 서예스더 선교사(남아시아 E국)

이곳 사람들은 무더위를 벗 삼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작년 7월 테러 발생 이후 정부의 강경 진압과 범죄자 색출로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다시 테러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일상에서 조금 더 조심하며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을 보면 딱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가난은 이 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형편이 나은 젊은이들에게서조차 꿈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이 참 평안과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2014년 이 땅을 선교지로 결정한 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 기본적인 자질과 선교현장 상황,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고, 열방을 향한 중보자로서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순회선교단 훈련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순회선교단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두 번씩 연합해서 말씀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작년까지 해오던 몇 가지 모임들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연말에 거의 정리를 한 상황이다. 새롭게 시작한 이 기도모임은 복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게 설 수 있게 하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CGNTV 직원들이 방문해서 40여 곳에 안테나를 설치해 주었다. 우리 가정도 안테나가 설치되어 주일에 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이 좋아요’ 등을 보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

올해 안으로 비자 상황과 맞물리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어 학원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 비즈니스가 단순한 비자의 해결을 넘어서 사역의 접촉점이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세워질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와 동기 부여, 정보 제공 등 요긴한 역할을 감당하는 허브가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주기를 부탁한다. 비즈니스 영역을 통해 비자를 얻고, 보다 넓은 접촉점을 형성하기를 원하는데 잘 진행되어서 안정적으로 이 땅에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아웃리치 간증



/ 이지영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시간

남들이 보기에 나는 부족한 것 하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껍데기 같은 결혼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했다. 허전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혼자행복학교를 알게 되었고 대전 22기를 수료했다.

수료 후 나는 매주 DRS(Divorce Recovery School) 토요일에 참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의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고 희망이 생겼다. 고리타분하던 말씀이 진리로, 시시하던 찬양이 은혜로 느껴졌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올해는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아웃리치 섬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되갚고 싶다는 의지로 시작했다. 한번, 두 번 섬기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사탄의 시험에 여지 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었다. 결국 나의 의지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전 이혼자행복학교에서 어디서든 들을 수 없었던 이혼자들을 위한 맞춤 강의를 들었

다. 그동안 몰랐던 나라는 사람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못 다한 우리들의 이야기(힐링 터치)’는 현재 DRS를 섬기고 있는 섬김이들의 회복과정을 세분화하였다. 회복과정을 살펴보면 이혼 전 나의 생각과 태도, 나의 성향과 전배우자의 성향, 나와 전배우자의 사랑의 언어 등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 섬김이들이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번 뿐인 여름휴가를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아웃리치에 올린 것이라고 하면 나를 한심하게 바라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풍성한 은혜로 가득했던 그 시간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 홀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DRS 토요일에 나오라고 말하고 싶다. 문의: 010-2539-5665

■ 내가 목도한 은혜



/ 홍성민 목사(이태원 세계로 선 교회)

러브소나타와 일본 부흥

우연히 방문한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에서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게 통역봉사자로 러브소나타에 참석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통역봉사자로 방문한 일본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러브소나타 행사 전날 방문한 아사쿠사 교회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와 천왕 신사참배에 대항하다 순교하고, 모진 박해를 받은 일본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교회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러브소나타에 인사동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만난 이사오 씨를 초청했다. 이사오 씨는 나에게 친하게 지내되 종교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못 박은 친구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 믿으며 감사기도를 했다. 러브소나타 행사를 마친 금요일 저녁 이사오 씨가 즐겨 다니는 라이브 카페에 초대받아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일본 가요를 복음가사로 개사하여 부르는 등 찬양 몇 곡을 불렀다. 헤어지기 전에 러

브소나타에 대한 인상을 묻는 나에게 이사오 씨는 “God Is Love”라고 대답했다.

러브소나타에서 대면계 미국인 가족과 필리핀 자매들도 만났는데 웃음꽃이 활짝 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러브소나타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러브소나타 집회 다음날 김정모 선교사님을 따라 나가노에서 열린 제17차 일본 가스펠 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동경 안디옥교회 주최로 17년 동안 열리고 있다. 젊은 찬양사역자들의 자작곡 경연대회다. 초창기 아마추어 같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프로 못지않은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한 사모님이 내게 미코에 신문사에서 일하는 에스켈 씨를 소개해 주셨다. 미코에 신문은 복음의 불모지라는 일본에서 17년 동안 발간되고 있는 기독교 신문이었다. 일본가스펠 찬양대회와 미코에 신문 같은 통로를 통해서 러브소나타와의 연결점을 만들면 더 풍성한 러브소나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내년에도 러브소나타 봉사를 하고 싶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이 부흥할 것을 믿는다.

■ 서빙고 워십콰이어 간증



/ 김양옥 성도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람

교회에 다닌 지 3년 반 정도 되었다. 온 좋게 온누리교회가 나의 첫 번째 교회다.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처음 믿은 사람이다. 성경책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읽는 것이 힘들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많았다. 성경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둘씩 참석했다. 조금씩 성경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즈음이었다. 교회 게시판에서 워십콰이어 단원모집 광고를 보았다. 음악 듣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부르지 않던 내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문자로 신청을 했다.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면서 설레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건강문제로 가정에서의 힘든 상황들이 겹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워십콰이어 단원모집에 신청하면서 느낀 설렘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을 덮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보았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다. 이러한 마음들이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가정에도 밝은 에너지가 돌기 시작했

다. 주변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잘 하라고 축하와 격려, 기도를 해주셨다. 무엇보다 가장 기뻐했던 것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 없던 두 아들이 나의 첫 찬양예배에 참석했다. 두 아들이 찬양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봐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매일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 하고 있다. 정말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다.

매주 주일 강단 위에서 찬양하고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면했던 지인에게 정말 감사하다. 워십콰이어 단원들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워십콰이어 단원들과 함께 하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요즘은 나도 모르게 함께 찬양할 사람을 찾게 된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워십콰이어 단원으로 발걸음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문의: 010-2111-4657

장로칼럼

마땅히 해야 할 일



신헌승 장로
(선교분과위원장)

안산M센터에서는 매년 8월 세례식이 진행된다. 1년 동안 부지런히 땀 흘린 이주민사역의 열매다. 금년에는 이주민 26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주민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M센터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생소하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결단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는 세례식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된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한 예를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

A국에서 온 무슬림인 B형제는 한국에 와서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 주는 여러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된 사랑이라고 의심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진심을 다해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례식에서 만난 그는 오랜 갈등의 여행을 마친 듯 울고 있었다. B형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인종과 종교를 뛰어 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온누리M미션은 1993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바자회를 시작한 이후 25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했다. 단순히 금홍사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로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3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 1만 명이 온누리미션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 25개국에서 온 이주민 500명이 세례를 받았다. 28명은 TIM(두란노해외선교회)과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13개국 선교사로 역파송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상을 우리 곁으로 보내 주셨다. 2016년 200만을 넘긴 한국의 이주민이 2021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올해 1월 첫 주일 설교에서 온누리교회 선교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역으로 이주민 사역과 난민 사역을 강조하셨다. 세계선교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주민과 난민의 이동은 선교의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이주민의 이동을 따라 선교가 이루어져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신대륙 개척에 발맞춰 선교가 확대되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중동 지역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선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주도적으로 이주민 선교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온누리교회 선교사 파송 역사상 최초로 이주민 사역만을 전담하는 9명의 선교사가 엄격한 심사와 훈련을 통과하고 'M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다. 이주민선교의 활성화가 전체 온누리교회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온누리M미션을 통해 이주민 역파송 선교사 수가 늘어나고, 한국 선교사들과 역파송 선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력이 이루어지면 선교현장에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타 교회와 단체를 돕는 사역은 온누리교회가 한국 전체 이주민 사역을 위해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권사칼럼

꽃차 카페를 운영하는 사역자



김명희 권사
(서산 온누리교회)

난 어려서부터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을 많이 사귀지 않는 성향이 다. 집안에서 며칠 동안 나가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편함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고백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였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꺼내어 쓰시니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겠는가. 나를 꺼내어 쓰실 때 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고 있다.

요즘은 은퇴 이후 꽃차 카페와 교육원인 ‘사론의 정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걷고 있을 뿐이다.

교육원에 꽃차자격증반을 수강하는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재혼을 했고, 한 분은 재혼 준비, 또 한 분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분들이 자기소개 시간에 묻지도 않은 신상을 털어 놓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라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나님은 내게 “그들의 상하고 지친 맘을 어루만지고 배가 부르도록 먹여라”고 하셨고,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우리는 매주 만날 때 마다 집단상담이라고 할 만큼의 깊은 대화를 나눈다. 강의가 끝나고 헤어질 때면 수강생들이 내게 “속이 후련해요”, “제가 여길 잘 왔어요”, “선생님은 살길을 알려 주시는 분이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러니

내가 어찌 다음 주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분에게는 수강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3급 과정을 수강신청을 하면서 다음 주에 수강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믿었고, 2급 과정 때에는 한 번에 납입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도 소식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수강생에게 당했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일러 바쳤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귀에 대고 “수강비 포기해라 너도 빚 많이 졌잖니?”라고 하셨다. 내가 “무슨 빚이요”라고 물으니 “사랑의 빚 있잖니”라고 하셨다. 성령님 말씀대로 빚을 포기 했더니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어느 날 또 다른 수강생 한 분이 “강사님 바쁘세요? 제가 누구와 함께 사론의 정원으로 가고 있어요”라며 전화를 했다. 얼른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정숙한 부인과 함께 들어섰다. 속으로 “사모님 같은데?”라며 인사를 나누는데 내게 전화를 한 수강생이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결혼할 사람이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라며 소개를 했다. 꽃차강사인 내 얘기를 했더니 만나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왔단다.

“하나님 또 연출 하시는군요. 저 사모님과 둘이 협력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작가이시며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누가 말릴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나였고, 누구에게 먼저 말을 꺼낼 줄 몰랐던 나를 충청연합회 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하나님께 아무런 요구를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좀처럼 말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분들을 위로 하려고 밥을 짓고, 차를 우리고, 꽃을 가꾼다. 사론의 정원은 나의 사역지이다. ‘꽃차 카페를 운영하는 사역자’ 이 얼마나 멋진 사역인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기고



남상현 팀장
(남양주 온누리교회)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 소년원)에서 지난 8월 12일 은혜와 축복의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무려 44명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의 결실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사모(새벽이슬 같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 팀원들은 세례 받는 청소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화관을 만들고, 십자가 복음팔찌를 만들었다. 만드는데는 과정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마음에는 감사와 감동이 가득 찼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청소년들은 순간의 실수로 어둠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그들이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구

주로 영접하면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세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더위는 느껴지지 않았고 발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벅찬 감격이 밀려왔고 감사가 넘쳤다.

세례식은 찬양과 경배로 시작했다. 각 조별로 새사모 팀원들과 청소년들이 1:4로 구원의 축복에 대해 나눔을 했다. 정성껏 준비해간 간식을 먹으면서 더욱 친근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했다.

드디어 세례식 시간이 다가왔다. 청소년들과 새사모 팀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들을 변화시켜주시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렸다. 세례식을 주관한 허원희 목사님은 “이 놀라운 축복의 세례가 성령세례가 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그들의 삶에 희망과 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가 진행되면서 숙연하면서도 애써해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희망과 꿈이 가득하기를

있었다. 우리 모두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행복할 권리를 찾게 되기를 기도했다.

세례식의 감격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13일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일어났다. 신촌정보통신학교 면회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어머니가 출소를 앞둔 아들을 면회하러 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나오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무척 걱정하는 마음으로 면회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걱정과 달리 면회 나온 아들의 얼굴이 무척 밝았기 때문이다. 아들의 팔목에는 십자가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소년은 울먹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실과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촌정보통신학교에 상주하시는 집사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신촌정보통신학교를 향한 새사모 팀원들의 사랑이 넘쳐난다. 새사모 팀원인 집사님 한분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상에서도 신촌정보통신학교 청소년의 안부를 물을 정도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 생각한다.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소년원사역이 때로는 힘들고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실망도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은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오늘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청소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이번 신촌정보통신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비전헌금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실 줄 믿는다. 오늘의 세례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들어봤나요? 지 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게 물 위를 뛰어다 니는 생물체랍니다. 손바닥만 한 몸 길이로 적이 나타나면 재빨리 이동하기 위해 물 위 를 빠른 속도로 질주해요. 1초에 무려 20회 정도의 발길질이 가능한 순발력과 물의 표 면장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예요. 물의 표면장력이란 물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서로 뭉치려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힘이에요. 물속의 분자들은 사방으로 인력이 작용하지만 표면의 분자들은 오직 아래쪽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므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뭉치게 되죠. 바닥에 떨어뜨린 물방울이 둥글둥글 맺히는 것도 바 로 이 표면장력 때문이에요.

사람도 표면장력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발바닥과 엄청난 이동 속도, 그리고 그 런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다리 근육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지배 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과학 이론 의 근간이 되는 힘 ‘중력’이에요. 그렇기에 사람 은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예 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신

(막 6:48) 장면이에요. 바실리스크 도마뱀 처 럼 엄청난 속도로 뛰신 것이 아니라 한걸음 씩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말이죠.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땅속에서 잡아당기는 영적 인 중력의 영향 아래 있어요. 걸을 때마다 영 적인 중력의 법칙을 실감해야 해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 칩을 발견했지만, 성경의 진리를 아는 우리 는 이 법칙을 통해 땅속의 지옥으로 끌려들 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슬픈 운명을 감지 해야 해요. 사망과 지옥 권세가 강력한 수직 의 영적 중력으로 작동되고 있지만, 우리 예 수님께만은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 님의 수상보행(水上步行)이에요. 사망 권세 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지옥의 권세를 벗 어난 주의 자녀들 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 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 니다”(시 16:10)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 제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저어가 는 장면에서 시작해요(막 6:45). 오병이어 기 적이 있었던 시간을 ‘날이 저물어 가자’(막 6:35)라고 표현하는데 대략 오후 5시경으로 본다면 식사 시간을 넉넉히 3시간 정도로 잡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

을 경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각은 저녁 8시경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녁 8 시경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벧 새다로 먼저 가게 하신 거죠(막 6:45). 하지 만 이 배는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떠 있 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 들을 찾아오신 것은 이른 새벽(막 6:48)이었 어요. 호수 건너편까지는 8km 정도로 순탄 하게 항해하면 2~3시간 안에 넉넉히 건널만 한 거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호수 한 가운 데(막 6:47)에서 이른 새벽까지 뭍 하고 있었 던 걸까요? 이유는 역풍(逆風)때문이었어요.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인간힘을 쓰는 것(막 6:48)을 보셨는데 이 ‘강한’이란 단어 인 헬라어 ‘에난티오스’는 ‘반대편’ 혹은 ‘맞은편’이라는 의미를 내포해요. 즉, 이 바람 은 배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逆風)이었던 거예요. 그 맞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예수님은 육지에서 호수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땡! 인생의 역경과 풍랑은 예수님 을 믿는 자들에게 전공필수 같은 과목이예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과정을 피하거나 낙망치 않고, 주님이 가 라하신 방향대로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다

보면 마침내 능히 이기시는 권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순간 그토록 무섭고 두려웠던 모든 바람이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요(막 6:51).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음으로써 우리가 소유 할 놀라운 권세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권 세는 사망과 지옥의 수직적 중력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지옥의 권세 를 벗어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권세 에요. 또한 거칠고 사나운 수평적 역풍을 이 기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모든 역 경을 이겨내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살롬 의 권세예요. 우리를 향해 수직적 중력과 수 평적 역풍을 거슬러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수상보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걸음일 거예요. 천국을 상상할 때마다 가 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친 구들이 하늘을 자 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말하더군요. 어쩌면 우리의 영 적 DNA는 죄와 사 망으로부터 자유로 운 하늘나라를 진 즉에 알고 있는 것 이 아닐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불만한 공연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저녁식사



연극 ‘디너 포 유: 낯선 이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예수님과 저녁식사를 하면 어떨까. 어떤 말 을 꺼내야 할까. 누군가는 가슴 깊은 곳에 숨 겨둔 상처를 꺼내놓을 것이고, 누군가는 알쏭 달쏭한 복음에 대해 물을지도 모른다. 그 질문 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

연극 ‘디너 포 유: 낯선 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이하 디너 포 유)’의 주인공은 남자다. 양말을 거꾸로 벗어 놓아서 아내에게 잔소리

를 듣는 이 시대의 혼한 남자다. 남자는 잔소 리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다. 이 시대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그도 일과 가정 어디에 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런 남자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식사 초대장을 받는다. 잠시라도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초대장에 적힌 곳을 찾아갔는데 초대장을 보 낸 사람이 예수라고 한다. 깔끔한 정장에 흰색 구두를 신은 사람이 스스로를 예수라고 소개 하니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까지 치민다. 그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집에 가려하지만 예수 가 남자를 붙잡는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내가 예수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 봐요. 그리고 누가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알려드리죠. 집에 가기 전에.”

남자와 예수는 식사를 하면서 90분 동안 이 야기를 주고받는다. 대화는 식사코스제 따라 변화한다. 남자는 십자군 전쟁, 마녀재판 등 자칫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예수 또 한 만만치 않다. “천국에 갈 정도로 선한 사람 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 신선한 답변들로 남 자를 놀라게 한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종교인들의 행태 와 인간의 도덕성 같은 보편적인 궁금증을 해 결해준다. 기독교 신자나 비신자 누구나 고개 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다. 종교, 행복, 고통,

가족, 사랑 등 연극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만한 주제들이다.

이 연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와 친 해질 수 있는 기회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네티즌 ‘ajkim’은 이 공연의 감상평을 다음과 같이 남 겼다.

“포교를 목적으로 만든 연극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배타적인 자세로 좌석에 앉았다. 연 극이 끝날 즈음에는 자신 없고 초라한 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텼음을 축하하고 위 로하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 연극을 보기 전이나 보고 난 후에 읽으면 좋은 책도 있다. 연극 ‘디너 포 유’는 〈예수님 과 함께 한 저녁식사〉(저 데이비드 그레고리) 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원작〈예수님과 함께 한 저녁식사〉는 2006~2007년까지 104주 동안 종교분야 베스트셀러였을 만큼 큰 사랑을 받 았다. 지금도 넉크리스천과 초신자들에게 부 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책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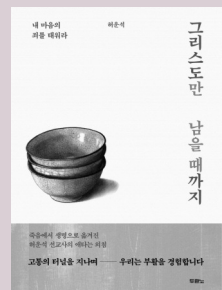
이 연극은 9월 24일까지 대학로 예그린씨어 터에서 월, 목, 금 8시/ 수 4시, 8시/ 토 3시, 7시 / 주일 4시에 막 오른다. 화요일은 상영하지 않는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길 130-5
문의: 예그린씨어터 02-6673-0100
인터파크 1544-1555

두란노 신간

아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허운석 저 | 두란노 | 11,000원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칙칙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 면서도 두려워하 지 않을 수 있을 까. 여기 죽을 때

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있 다. 그 주인공은 허운석 선교사다.

허운석 선교사는 아마존에서 22년 동안 사역했다. 정글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 났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이겨냈다. 그 런 그녀가 2006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투 병 중에도 그녀는 아마존으로 돌아가 설교 를 이어갔다. 2010년 암이 재발했다. 계속 된 절망에도 그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욕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욱 사랑했다. 이 책에는 그녀가 투병 중에 쓴 일기와 설교가 담겨있다.

허운석 선교사는 2013년 9월 주님 품에 안겼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했던 그녀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돌 아보게 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우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첫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

기간: 9월 5일~11월 28일(매주 화요일)

시간: 13:00~15:00

장소: 서빙고 신관1층 Acts29홀

자격: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자

문의: 한행자 권사(010-7738-3604)

아랍예배 예배팀 모집

시간: 매 주 주일 오후 1:30~4:00

분야: 건반, 퍼커션, 기타

문의: 박미애 전도사(010-3259-3561)

온누리 창조과학 스쿨 모집

대상: 교회 성도 및 공동체

일시: 9월 10일~10월 22일 주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 CGNTV 홍보관

문의: 010-3869-7785

인천 온누리교회 전임간사 모집

모집: 예배(음향) 담당간사 1명(남)

문의: 신상빈 간사(032-437-9686)

온누리 전도학교 17기 훈련생 모집

서빙고 일정: 9월 17일~11월 26일

8:50~10:30

장소: 홍보관(이천만광장)

문의: 정애린 간사(02-3215-3214)

박희록 팀장(010-3226-4364)

양재 일정: 9월 10일~11월 19일

8:50~10:10

장소: 강의동 305호

문의: 임정윤 간사(010-4751-7022)

송영봉 팀장(010-9001-6243)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한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 주 월 19

CGNTV의 '한 영혼을 위한 섬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갔던 지난 여름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섬김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미디어 아카데미

부산과 대구,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 사역자들을 위해
CGNTV의 영상제작 노하우를 나누고 미디어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노커스라이크 영상 나눔 프로젝트

노크팀과 뉴비전코리아가 함께 만든
'뉴비전여름캠프 홍보영상'을 통해 평소의 두 배가 넘는
400여 명의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이 캠프를 찾아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빙고 벽화 나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CGNTV와 온누리아트비전이
힘을 모아 서빙고역 담벼락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벽화를 그렸습니다.



고향교회 섬김

전북 진안의 배넘실교회를 찾아가 마을회관 보수와
해바라기 밭 가꾸기, 마을잔치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9월 1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CGNTV